

## 2022.12.09(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2-12-09 오전 2:46

수정한 날짜: 2022-12-09 오후 12:34

## 2022.12.09(금)증권사리포트

SK하이닉스

메모리 추가 공급 감소 기대감 반영될 전망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 4Q22 영업적자 2.2조원 예상

4Q22 실적이 매출액 8.5조원(-23%QoQ)와 영업적자 2.2조원(적자 전환)을 기록하며,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서버 고객들의 반도체 재고 조정 강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성수기 효과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상황 속에서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이 더해지면서, 4Q22 DRAM과 NAND의 출하량이 당초 회사측 가이던스를 하회할 것이다. 다만 DRAM과 NAND의 가격은 분기초에 제시했던 당사의 예상치에 부합하며, 지난 6개월 간 계속됐던 가격 전망치의 하향 조정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NAND 사업의 재고평가 손실과 Kioxia에 대한 금융자산평가손실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2023년 실적은 매출액 35.5조원(-22%YoY)과 영업적자 2.1조원(적자전환)을 기록하며, 당사의 기존 전망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고객들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1Q23 DRAM과 NAND의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 연말 DRAM과 NAND에 대한 공급 조절 흐름에 동참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 더욱 주목해야만 한다. 당사는 올 연말 SK하이닉스의 공급 조절(또는 감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 후 1Q23 중에 DRAM과 NAND의 업황 개선 시그널이 목격될 것으로 판단 중이다. 주가 역시 이에 화답하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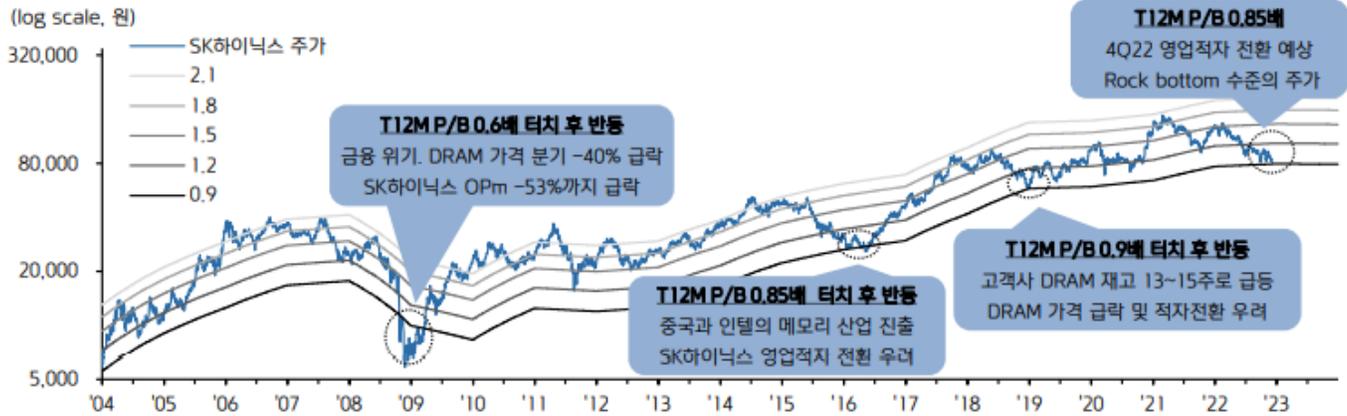
### 저가 매수 나서야 할 시기. 업종 top pick 매수 추천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당사가 판단 중인 수준에서 반복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감산에 따른 NAND의 업황 개선 기대감'과 '고객 재고 조정에 따른 반도체의 수요 악화 우려'가 부딪치며, 주가의 하단과 상단을 각각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는 올 연말이 지나면서, SK하이닉스의 반복됐던 주가 등락 흐름이 끝나고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DRAM과 NAND에 대한 공급 감소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삼성전자로 인해 불거졌던 업계 내 경쟁 심화 우려를 완화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2~'23년 EPS 전망치 변경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소폭 하향하지만, 주가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업종 top pick으로 매수 추천을 재개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31,900	42,998	45,451	35,513
영업이익	5,013	12,410	6,477	-2,100
EBITDA	14,785	23,069	19,653	12,454
세전이익	6,237	13,416	4,378	-1,356
순이익	4,759	9,616	1,795	-1,12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755	9,602	1,792	-1,124
EPS(원)	6,532	13,190	2,462	-1,544
증감률(%YoY)	137.0	101.9	-81.3	적전
PER(배)	18.1	9.9	32.0	-51.1
PBR(배)	1.7	1.5	0.9	0.9
EV/EBITDA(배)	6.4	4.8	5.3	7.9
영업이익률(%)	15.7	28.9	14.3	-5.9
ROE(%)	9.5	16.8	2.8	-1.8
순부채비율(%)	16.8	25.8	35.2	28.0

###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B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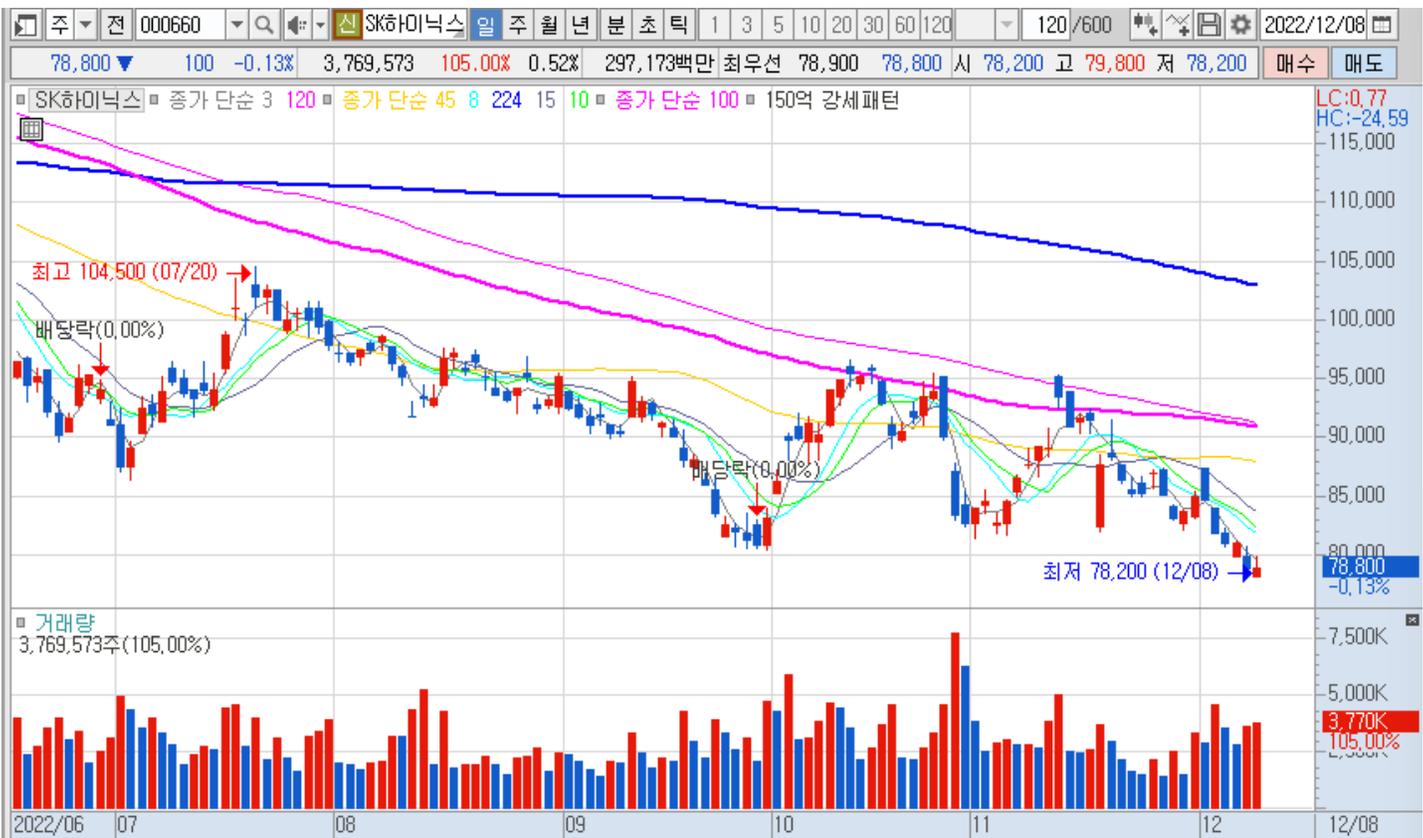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B vs. 영업이익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견조한 재무구조/실적 지속 전망

당 리서치센터는 금호석유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지속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재무구조/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래에 동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간략히 부연한다.

첫째, 원재료가 급락에 따른 반사 수혜가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 4분기는 정기보수 진행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중국 NCC발 증설 확대에 의한 기초유분/중간제품 등의 물량 증가로 동사의 주요 원재료인 벤젠/부타디엔/SM/프로필렌/에틸렌/ECH/PO/AN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크래커를 보유하지 않은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이점이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당 리서치센터 추정 동사의 기초유분/중간제품 외부 구입량은 연간 250~300만톤으로 \$100/톤의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연간 3.3~4천억원의 원재료 구입액이 감소한다. 한편 이번주 유럽(NWE FOB) 부타디엔 스팟 가격은 \$450/톤으로 전주 대비 50% 이상 급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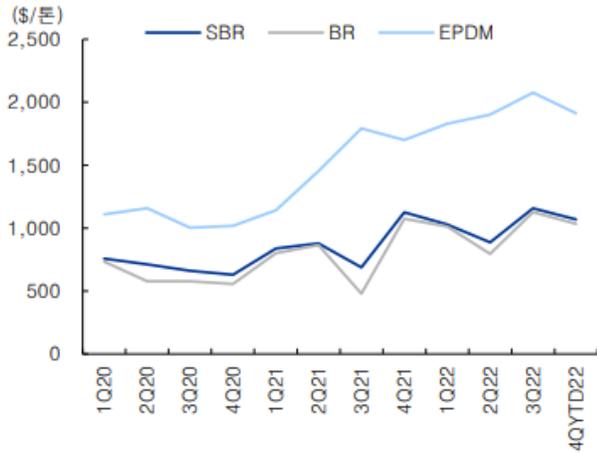
둘째, 동사의 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타이어의 내년 수요는 올해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임시 구매세 인하에 따른 기고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나, 미국/유럽/이머징 지역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반도체 공급 개선으로 2년간의 공급 차질이 해소되며 2020년부터 누적된 대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는 장갑/자동차용 범용 고무의 향후 수급 밸런스를 고려하여 NB Latex의 증설 계획을 연기하고,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SBR/BR/SSBR/NBR/EPDM의 증설/생산성 향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합성고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최근 동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2009년 400%를 상회하던 순차입금 비율은 선제적 사업 구조 변경으로 작년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올해/내년 각각 6천억원 이상의 Capex 투입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제품믹스 변경, 원가 개선으로 순현금 포지션을 지속하며 경쟁사 대비 주주환원도 낙관적일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4,810	8,462	8,120	7,586	8,450
영업이익	742	2,407	1,244	892	1,012
세전이익	767	2,618	1,384	987	1,115
지배주주순이익	583	1,965	1,042	747	844
EPS(원)	17,405	58,694	31,504	23,113	26,104
증가율(%)	97.9	237.2	-46.3	-26.6	12.9
영업이익률(%)	15.4	28.4	15.3	11.8	12.0
순이익률(%)	12.1	23.2	12.8	9.9	10.0
ROE(%)	20.2	47.8	19.3	12.5	12.7
PER	8.3	2.8	4.5	6.1	5.4
PBR	1.5	1.1	0.8	0.7	0.7
EV/EBITDA	5.4	1.8	2.8	3.4	2.7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국내 SBR/BR/EPDM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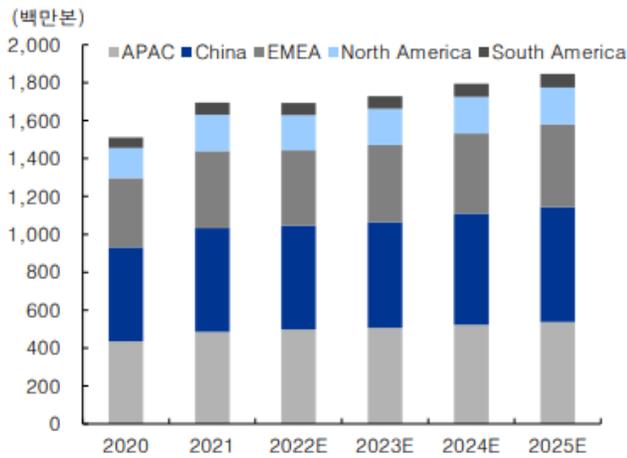
자료: KITA 등, IBK투자증권

그림 2. 역내/외 부타디엔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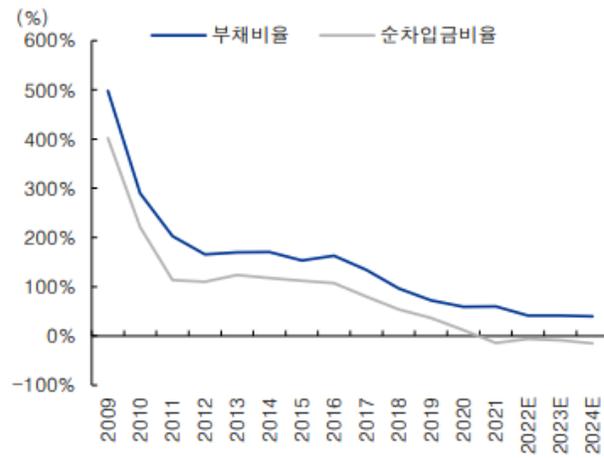
자료: 씨스캠, IBK투자증권

그림 3. 세계 타이어 시장 추이/전망



자료: LMC 등, IBK투자증권

그림 4. 금호석유 연결 부채비율/순차입금 비율 추이/전망



자료: 금호석유, IBK투자증권



디어유  
탄탄한 구독수 증가 추이

3Q22 매출액 +14.1% yoy, 영업이익 -4.6% yoy

3Q22 매출액은 122억원(+14.1% yoy, +4.4 qoq), 영업이익 40억원(-4.6% yoy, +32.9% qoq)을 기록함. 입점 아티스트 IP의 팬덤 확대 및 신규 IP 입점에 기인한 외형 성장 달성함. 다만, 신규 서비스 런칭을 위한 서버 구축 등의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우호적 환율 영향으로 당기순이익(78억원)은 큰 폭으로 개선됨. 3Q22 누적 기준 국내외 매출 비중은 해외 71.5%, 국내 28.5%로 구성됨.

K-POP 팬덤 확대 & 신규 서비스 출시

[Q] 현재 버블 플랫폼에 입점한 IP수는 380명(2Q22: 327명)으로 파악됨. 해외 아티스트 IP의 추가 입점은 지연되고 있으나, 입점 아티스트 IP의 글로벌 팬덤 확대에 기인한 구독수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올해 매 분기 10만 이상의 구독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150~160만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됨. 향후 입점 아티스트 IP의 오프라인 활동 확대에 따른 증가 추이는 더욱 가파를 전망.

[P] 내년 상반기 'Live 서비스' 정식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세 본격화 될 전망. 현재 라이브 기능이 추가된 베타 버전을 운영 중이며, 별도의 유료 상품(아이템 & 이모티콘 등) 판매를 통해 ARPU 상승 견인할 전망. 현재 인당 구독수는 1.8명으로 ARPU는 8,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높은 구독 유지율(약 90%)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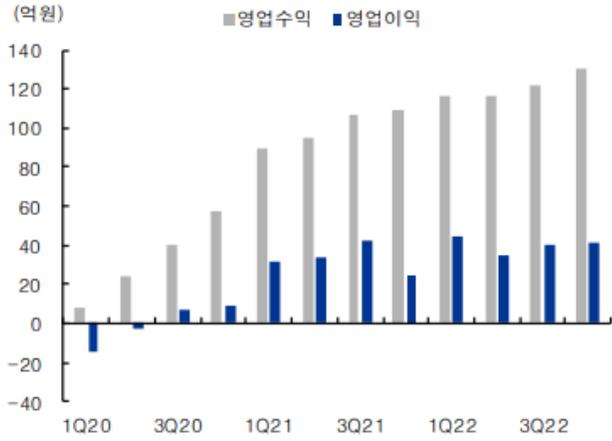
2023E 매출액 792억원(+63.2%), 영업이익 277억원(+72.5%)

내년도 예상 매출액은 792억원(+63.2% yoy), 영업이익은 277억원(+72.5% yoy), 영업이익률은 35.0%를 기록할 전망. 글로벌 K-POP 수요 증가 지속되는 가운데, P(신규 서비스)와 Q(SM & JYP향 신인 IP 추가 입점 등)의 동반 확대가 예상되며, 연말 총 구독수는 220만명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함. 별도의 팬 커뮤니티 운영(Stray Kids 등)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가능할 전망.

(단위:억원,배)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	-	17	130	400
영업이익	-	-	-81	-5	132
세전이익	-	-	-230	-14	-244
당기순이익	-	-	-230	-22	-252
EPS(원)	-	-	-1,373	-135	-1,349
증가율(%)	-	-	-	-	-
영업이익률(%)	-	-	-476.5	-3.8	33.0
순이익률(%)	-	-	-1,352.9	-16.9	-63.0
ROE(%)	-	-	7,233.5	174.1	-41.6
PER	-	-	-	-	-60.7
PBR	-	-	-	-	14.6
EV/EBITDA	-	-	-0.2	-42.0	1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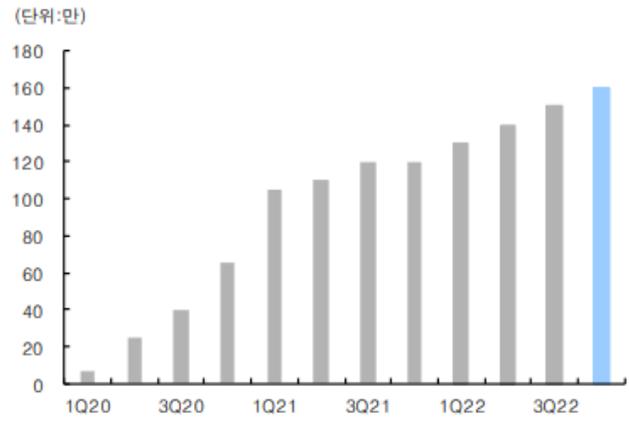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디어유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1Q20~4Q2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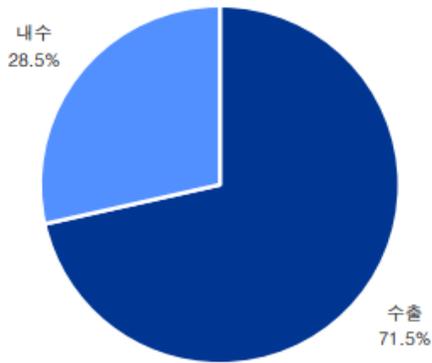
자료: 디어유, IBK투자증권

그림 2. 디어유 버블의 분기별 구독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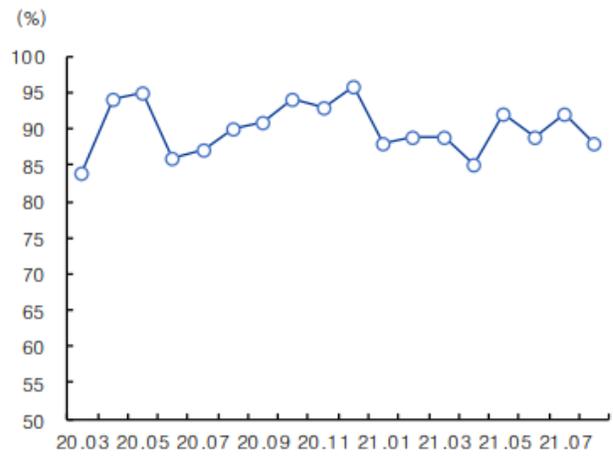
자료: 디어유, IBK투자증권

그림 3. 디어유 버블 국내외 매출 비중 현황(3Q22누)



자료: 디어유, IBK투자증권

그림 4. 디어유 버블의 구독 유지율 추이



자료: 디어유, IBK투자증권



하이딤  
휴대폰 시장에 가져올 혁신

스타일러스 펜 시장의 판도 변화 기대

디스플레이가 얇아질수록 터치센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가 대두. 동사는 기존 터치 IC 기술에 센싱 기술을 더해 노이즈 제거에 성공. 해당 기술은 디스플레이 업체가 추가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보유

동사가 보유한 스타일러스 솔루션에도 주목 필요. 기존 스타일러스 솔루션은 배터리가 탑재되는 액티브 형태와 EMR을 활용한 패시브 형태로 구분 가능. 액티브 형태가 적용될 스타일러스 펜은 각 공급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토콜 활용하고 있어 호환 및 충전이 불가능하고 패시브 형태가 적용될 스타일러스 펜은 스타일러스 센서가 포함되어 단말기가 얇아지기 어려움

한편 동사의 스타일러스 솔루션은 터치 IC와 스타일러스 센서를 하나의 칩으로 결합해 펜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동사 솔루션 적용될 스타일러스 솔루션 단가는 기존 대비 10배 높은 수준인 바 채택 시 매출 업사이드 효과 클 것으로 판단. 높은 가격에도 채택 기대감 높은 이유는 원가 절감 및 두께 감소 효과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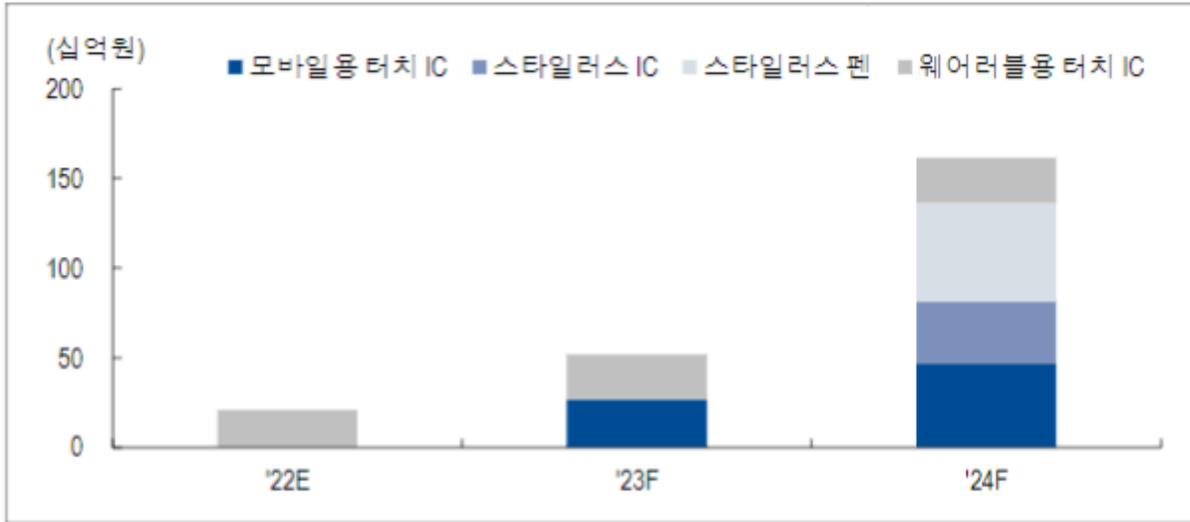
빠르면 2023년 모바일용 터치 IC 채택 이후 매출 본격 성장 기대

현 주력 제품인 스마트워치용 터치 IC는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 유지할 것으로 전망. 동사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세는 스타일러스 솔루션과 모바일 등 터치 IC 채택 이후 나타날 것. 당사는 2023년 모바일용 터치 IC, 2024년 스타일러스 솔루션 채택 기대

	2021	2022E	2023F	2024F
매출액	13.3	21.0	51.9	161.5
증감률	805.1	57.6	147.5	211.1
영업이익	-4.3	0.0	9.9	44.3
증감률	적지	흑전	-	345.6
영업이익률	-32.4	0.0	19.1	27.4
(지배지분)순이익	-5.0	0.3	8.8	37.2
EPS	-56	3	60	255
증감률	적지	흑전	2,109.0	324.7
PER	N/A	390.6	17.7	4.2
PBR	38.6	6.9	5.0	2.3
EV/EBITDA	N/A	269.5	12.5	2.2
ROE	-111.1	2.3	32.6	74.6
부채비율	78.6	42.5	45.7	31.2
순차입금	0.1	-12.9	-17.5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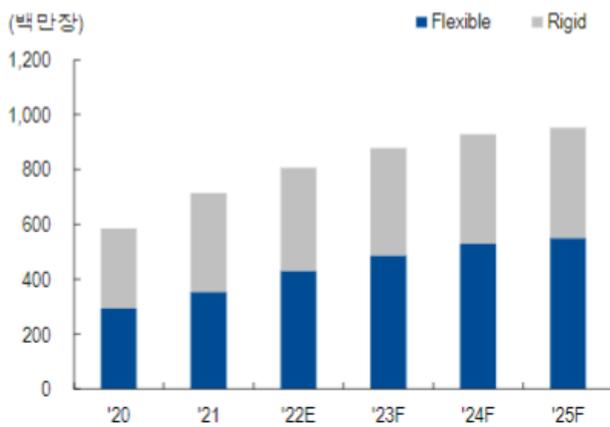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 2023년 모바일용 터치 IC, 2024년 스타일러스 솔루션 납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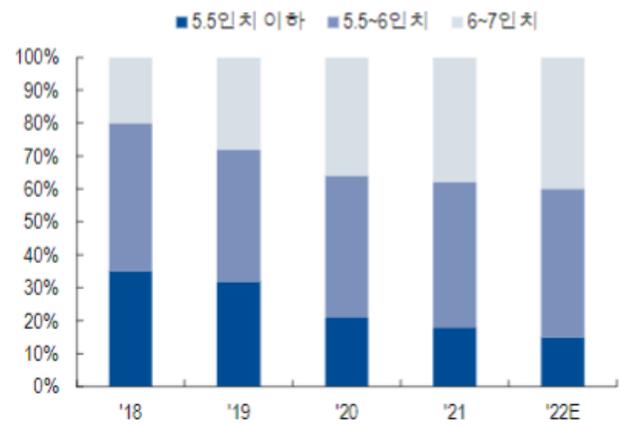
자료: 하이딥,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3. 증가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 비중



자료: Omdia, 하이딥,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스마트폰 대형화되면서 스타일러스 펜 수요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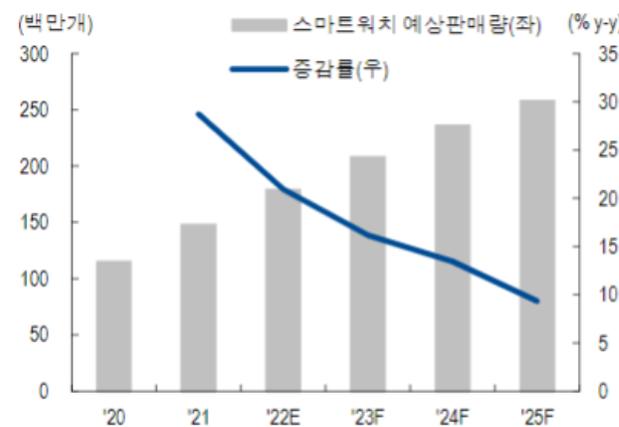
자료: Statista, 하이딥,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Stylus Pen 시장 지속 성장 중



자료: Statista, 2021, 하이딥,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현재 주력 매출원인 스마트워치 시장도 꾸준하게 증가



자료: CSS Insight, Feb 2021, 하이딥,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썬리드  
 장기 이익 성장 지속 전망되는데 저평가 매력까지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매수/목표가 15,000원 유지, 장/단기 모두 투자 유망

솔리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15,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2022년 2분기 이후 본격화된 실적 호전 양상이 202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2) 미국과 더불어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유럽/일본에서 추가 매출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오픈랜 시장 확대와 더불어 솔리드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는 양상이고, 4) 뚜렷한 실적 호전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역사적으로 현저히 낮은 Multiple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및 2023년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급격한 수급 개선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2024년까지 이익 성장 지속될 것, 반면 주가 상승은 미미

솔리드의 2022년 2분기/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각각 31억원과 101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도 더 좋았다. 드디어 오픈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주력인 미국 DAS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2022년 4분기에도 실적 호전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여 미국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결 영업이익이 개발비 환입이 있었던 2021년 4분기를 뛰어넘긴 어렵겠지만 지난 3분기보단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4년 장기 실적 전망 역시 밝다. 매출처 확대가 지속될 것이고 매출액대비 비용 부담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유럽 관공서 매출은 지역이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인 오픈랜 매출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가세할 전망이다. 개발비 상각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미국에 이어 유럽/일본 매출처 확대로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아직도 솔리드 실적 호전이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 관계로 보면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도 장기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공공부문 및 오픈랜에서 추가 매출처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고 오픈랜의 경우에도 미국 위주에서 일본으로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존의 미국 DAS 및 일본 전송망/프론트홀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공공부문(유럽) 및 오픈랜(미국/일본) 매출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실적 호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171.1	212.3	254.6	283.5	319.0
영업이익	십억원	(15.7)	6.1	22.9	34.6	42.9
세전이익	십억원	(14.0)	33.8	31.4	35.0	43.5
순이익	십억원	(11.5)	23.9	27.3	31.5	39.2
EPS	원	(214)	417	446	514	640
증감율	%	적전	흑전	6.95	15.25	24.51
PER	배	(50.92)	15.76	12.47	10.82	8.69
PBR	배	5.17	2.03	1.47	1.29	1.12
EV/EBITDA	배	(69.03)	33.15	10.85	7.30	5.58
ROE	%	(9.87)	15.56	12.84	12.82	13.96
BPS	원	2,108	3,233	3,791	4,305	4,945
DPS	원	0	0	0	0	0



데이터센터 단위로 사업규모 확대

씨이랩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4.6억원(+260.9%, yoy), 영업손실 10.2억원(적자전환, yoy) 기록. 전년 동기 대비 Uyuni 어플라이언스가 GPU/서버 단위 납품 구조에서 데이터센터 단위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며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함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 61억원을 고려하면 4분기 QoQ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신버전 Uyuni Suite가 내년 초 출시될 계획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AI 영상분석 구독형 서비스 사업 시작

씨이랩은 AI 영상분석 서비스 X-AIVA를 기반으로 구독형 사업을 시작할 계획. 사용자가 업로드 한 영상 내에서 원하는 객체를 탐지하고 출현 빈도와 해당 시간 등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클로드 베타 서비스 진행 중. 일반 사용자들의 다양한 활용에 따라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상품군을 B2C까지 확대하고 미국 법인(2022년 10월 설립),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 예정

다방면으로 확대 중인 AI영상분석 솔루션

- 1) 배송로봇 비도로 운행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네이버랩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씨이랩이 올해 연말까지 총괄 진행할 예정으로 30만장의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 2) 녹조·적조 AI 탐지 솔루션: 과기부 지원사업. 드론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 자료를 가공, 학습 모델링하여 이상현상인 녹조, 적조 발생 가능성 예측에 대한 정확도 향상에 활용될 예정
- 3) 헬스케어: 엔젠바이오와 MOU 체결, AI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정확히 구분하는 영상인식 알고리즘 개발 예정

(단위:억원,배)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23	51	71	112	58
영업이익	1	-2	3	7	-20
세전이익	0	-1	1	5	-19
당기순이익	1	-1	1	7	-21
EPS(원)	22	-31	13	155	-367
증가율(%)	-23.2	-241.4	-143.8	1,048.6	-337.4
영업이익률(%)	4.3	-3.9	4.2	6.3	-34.5
순이익률(%)	4.3	-2.0	1.4	6.3	-36.2
ROE(%)	6.3	-7.3	3.2	27.8	-15.4
PER	298.7	-162.4	445.4	165.1	-87.5
PBR	14.9	12.3	14.1	37.5	7.9
EV/EBITDA	133.0	-400.5	41.5	90.0	-144.0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스마트카 S/W 상용화

오비고는 스마트카 S/W 개발 및 판매 기업. 동사의 솔루션은 AGB 브라우저, 앱 프레임워크, 개발 툴킷, 앱 스토어로 구성. 자동차 커넥티드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상용화 성공. 2008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B사에 적용되는 HMI브라우저 최초 상용화 성공 이후 2013년 국내 완성차, 2017년 글로벌 Top3 완성차 등 상용화 레퍼런스 다수 확보  
 동사의 매출은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로열티, 유지보수로 구성. 차량탑재 시 적용 솔루션의 개수 및 탑재되는 차량 볼륨에 따라 1~7달러의 로열티 매출 수취. 별도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아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창출 가능

LG유플러스와 사업 제휴 강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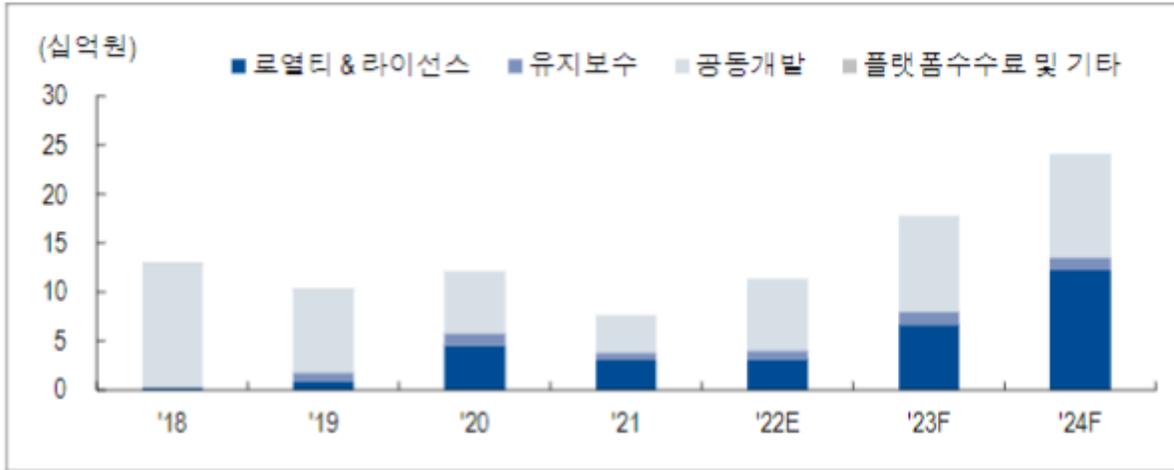
LG유플러스와 사업제휴에 따른 시너지 기대.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오비고에 72.3억원(지분율 5%) 규모의 지분 투자.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차량용 웹 플랫폼 사업제휴 목적. 양사는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고객사를 확보해 커넥티드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예정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 기조 및 신규 고객사향 로열티 매출 확대로 2023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동사의 로열티 매출은 '22년 32억원→'23년 66억원 → '24년 122억원으로 증가 예상. 동사의 연간 고정비가 14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로열티 매출액 증가에 따른 높은레버리지 효과 기대. 동사의 2023년 실적은 매출액 178억원(+57.0% y-y), 영업이익 22억원(흑전 y-y, 영업이익률 12.5%) 전망

	2021	2022E	2023F	2024F
매출액	7.7	11.3	17.8	24.1
증감률	-36.5	47.8	57.0	35.5
영업이익	-6.1	-3.5	2.2	5.7
증감률	적지	적지	흑전	156.2
영업이익률	-79.3	-31.0	12.5	23.5
(지배지분)순이익	-6.0	-2.3	2.3	5.1
EPS	-596.4	-196.5	191.8	420.6
증감률	적지	적지	흑전	119.3
PER	N/A	N/A	45.7	20.8
PBR	7.9	3.2	3.1	2.7
EV/EBITDA	N/A	N/A	21.7	10.7
ROE	-43.1	-7.6	6.9	13.7
부채비율	25.9	25.5	25.1	23.0
순차입금	-24.8	-29.0	-28.7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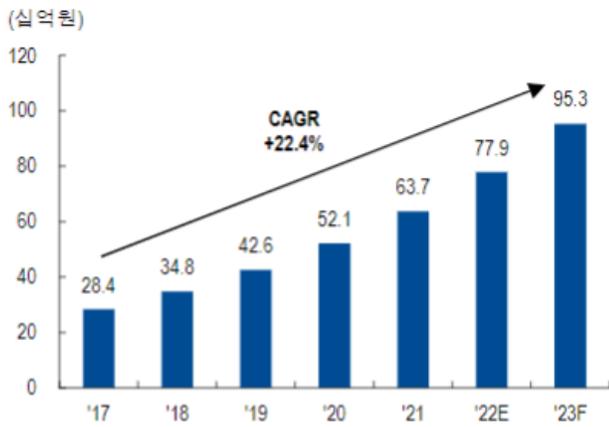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 및 신규 고객사 추가로 로열티 매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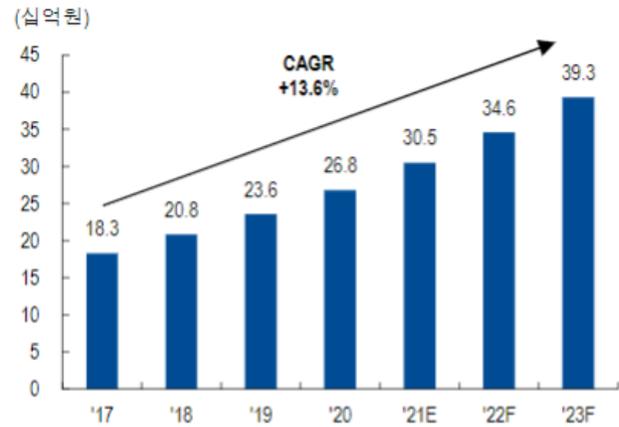
자료: 오비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그림3.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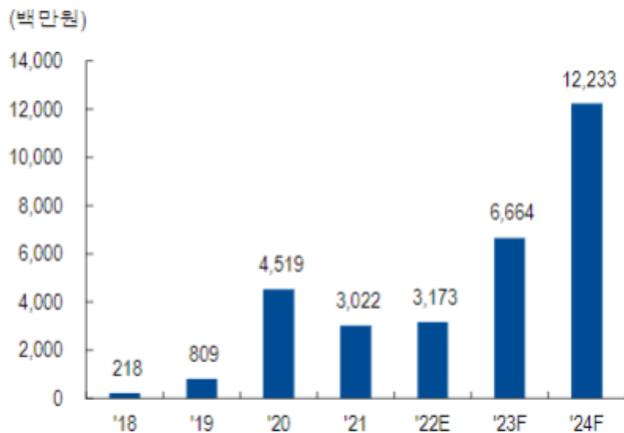
자료: MarketsandMarket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그림4. 글로벌 인포테인먼트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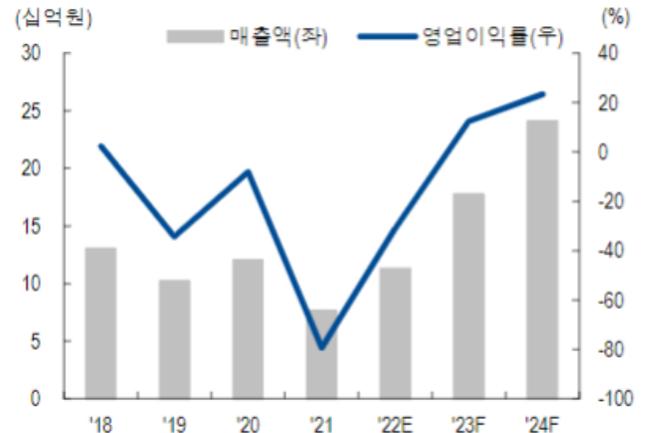
자료: MarketsandMarket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그림5. 로열티&라이선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오비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그림6.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오비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